

목정호 봉어섬, 작약·꽃양귀비 만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임실군, 주말마다 평균 7~8000명 방문 등 5월 봄꽃 관광명소 인기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목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472번지 일원) 일원이 5월을 맞아 만개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로 물들며 전국적인 봄꽃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5월 봄의 절정을 알리는 작약과 꽃양귀비가 화려하게 피어 내면서 목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일원 작약꽃밭 일대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시계절 경관 꽃이 조성된 목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은 지난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14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가운데, 주말마다 평균 7~8천명이 찾는 등 역대급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각지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난 주말에만 1만 4천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노동절을 낀 황금연휴 기간에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목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일원이 5월을 맞아 만개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로 물들며 전국적인 봄꽃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 4일간 2만 3천명이 방문해 봉어섬 일대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현재, 봉어섬 생태공원에는 6,000㎡ 규모에 2만4천본의 작약이, 운종리 작약밭에는 7,200㎡규모에 3만본의 작약이 만개해 압도적인 꽃의 향연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 새롭게 조성한 1만㎡ 규모의 꽃양귀비 단지도 개화를 앞두고 있어, 붉게 피어난 작약과 꽃양귀비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꽃물결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섬진강 다목적댐으로 형성된 목정호의 푸른 물결과 붉게 만개한 작

약꽃이 감렬한 대비를 이루며 전국 최고의 포토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봉어섬 생태공원 곳곳에는 작약과 꽃양귀비뿐 아니라 알리움, 델피늄, 다알리아, 임파넨스 등 다양한 계절 초화류도 식재돼 입체적인 경관을 완성하고 있다.

군은 작약꽃이 피어있는 6월 중순까지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및 교통·주차 관리 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방문객 불편 최소화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실=진중영 기자

대형 복합재난 대응 역량 점검

순창군, 산불·요양병원 화재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순창군이 지난 15일 순창요양병원 일원에서 2026년 재난 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며 대형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대표 재난인 산불이 발생한 뒤 인근 요양병원 화재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 장소인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시설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훈련에서는 산불 진화와 환자 대피, 인명 구조 활동 등을 실제 상



황처럼 실시했으며, 일반적인 계단 대피 대신 같은 층의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는 '수평 대피' 방식까지 적용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날 훈련에는 순창군 공무원을 비롯 소방·경찰·7733부대 3세대·한

국전력공사·KT 등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연합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군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도 일차 헬기와 정음국유립관리소의 산불진화차 '유니북' 등 총 6종의 장비가 동원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대응 훈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의 현장 대응 활동과 정음국유립관리소의 산불 지휘체계까지 실제처럼 구현돼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산림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공무원 진화대 결성 이후 순창군 내 산불 피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의 효과를 입증했다.

/순창=이원일 기자

남원시, '춘향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효과

남원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제96회 춘향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이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춘향제 기간 축제장 내 음식 판매부스와 먹거리 공간 등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해 총 45만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크게 줄여 약 35톤의 쓰레기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축제장 곳곳에 음식은 다회용기에 제공되었으며, 상인과 시민 및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친환경 축제 문화 정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다회용기 도입은 단순한 일회



용품 감축을 넘어 이산화탄소 47톤과 미세먼지 90kg 감축 효과로 이어지면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남원의료원 협력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과 협력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내원 환자를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의 환기와 예방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의 증

상을 보이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이 필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예방 건강 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갈증을 느끼기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샤워 자주 하기, 유희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양산,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확인하기(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이며,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된 발생 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역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한다

남원시는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남원다움관이 소장한 12만 건의 지역 기록을 활용해 '남원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기억기도(記憶地圖)'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아카이브에는 남원 읍·면·동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부터 과거 남원군 시절의 행정 기록, 춘향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축제 기록까지 남원의 근현대사가 총망라된다.

특히 문서, 사진, 녹취록,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전망이다.

남원다움관은 이러한 풍부한 기록



자산을 바탕으로 1층 전시실에 새로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단순한 자료 검색과 보존을 넘어, 옛 기록 속에 관광객 자신의 모습을 담아보는 연동형 체험 콘텐츠 등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아카이브 콘텐츠는 향후 새롭게 건립되는 남원다움 제2관 '레코드테크'로 이전되어 한층 더 고도화된 전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그림책 자서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주민 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치매 환자의 삶을 기록하고 정서적 치유를 돕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 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 5월 15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관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그림책 자서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그림책 전문 작가의 세밀한 지도로, 참가자들은 '일생의 기



억'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매회 정해진 소주제에 맞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지적이준점 신규 설치 완료

임실군이 정확한 지적측량과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을 위해 지적이준점(도근점) 신규 설치를 완료했다.

군은 올해 지적측량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과 기존준점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도근점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347점의 도근점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적이준점은 토지 경계 측량과 각종 공간정보 구축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과 토지 경계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하여 현장조사와 성과 검증을 거쳐 추진했으며, 기준점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은 신규 설치된 도근점 성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고 관련 측량업무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중영 기자

순창군,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순창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1가구로, 군비와 복권기금을 합쳐 1억 6,800여만 원을 확보했다. 가구당 최대 800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며, 순창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약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공사 아닌 개량·보수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 항목은 △단열 벽체 △고효율 창호·보일러 교체 △문턱 제거 및 장판 보수 △화장실·주방 개보수 등이며, 지붕 개량이나 화장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 3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순창=이원일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